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대한민국에 문장가가 없다?



정옥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008년 3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된 지주였다. 청와대 비서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문장을 좀 다듬을 일이 있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우리나라에 문장가가 없는 것 같다. 문장 잘하는 사람 좀 추천해 달라.”는 요청였다. 나 역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다시 “왜 이렇게 문장가가 없지 궁금하다. 옛날에도 그랬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 시대에는 문·사·철을 함께하지 않아서 문장가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안 되어 있다. 옛날에는 문·사·철을 겸수하는 학문 체계였기 때문에 문장가가 많았다.”고 대답했다.

문장이란 화려한 수사만 나열해서도 안

되고, 알맹이가 있어야 한다. 메시지가 없는 문장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그 알맹이, 다시 말하면 메시지는 철학과 역사를 공부해야 생긴다. 그런데 철학만 공부하면 공허해지고, 역사만 공부하면 사건의 나열이나 현상만을 제시하고 만다. 그래서 철학과 역사는 상호보완해서 연구해야 한다.

그 방법을 전통시대에는 경경위사(經經緯史)로 표현했다. 경경의 앞의 경(經)자는 낱줄을 말하고, 뒤의 경(經)자는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을 말한다. 경학을 낱줄로 한다는 뜻이다.

뒤의 위사에서 위(緯)자는 씨줄을 말하고, 사(史)자는 역사를 말한다. 역사를 씨줄로 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경경위사란 경학을 낱줄로 삼고, 역사를 씨줄로 삼아 입체적으로 전사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학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인간답게 사는 길은 무엇인가를 말한다. 예컨대 사람은 참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는 진선미(眞善美)라던가, 사람은 효도를 해야 한다던가, 사람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등등 삶의 지표는 시간이 경과해도 변함없는 동서고금의 진리임에 틀림없다. 역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제반 양상

을 밝히는 학문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시간 개념을 빼면 역사로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시간에 따라 추적하는 하는 학문이 역사다. 역사는 인간 군상들이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예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경학과 역사를 낱줄과 씨줄로 삼아 직조하듯이 입체적으로 세상의 진리인 도(道)를 파악해도 좋은 문장이 없으면 표현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바로 그 도를 담은 좋은 문장이라는 그릇이 필요하다. 이를 도기론(道器論)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하여 경경위사와 도기론은 좋은 문장을 쓰기 위한 기초이자 인문학의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문·사·철에 대입해 보면 경학은 바로 오늘날의 철학이다. 역사는 물론 오늘날도 역사이다. 문(文)은 오늘날의 문학이라기보다 문장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은 문·사·철이 문학과 역사와 철학의 약칭으로 해석되고, 세 학문분야는 각기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따로따로 놓고 있지만 전통시대 세 분야는 경학과 역사와 문장으로서 경경위사의 학문방법과 도기론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보완의 틀을 확보하

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학문이 전문성으로 무장한 각론에 치우쳐 나누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의 늪에 빠져 시너지 효과를 상실하고 있다. 또 학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통합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인문학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인문학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인문학의 문제가 문장가의 배출을 막고 있다는 결론이다. 문장은 소통의 중요한 수단인면서 예술적 향기가 중요하다. 아름다운 문장을 쓰되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 하니 예술성과 실용성을 두루 갖춰야 제대로 된 문장이 되고, 문장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옛 선현들은 만권의 책을 읽어야 그 책에서 나오는 기운이 흘러넘치고 문자의 향기 그윽한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결국 훌륭한 문장가는 독서가 생활화되고, 문·사·철이 통합된 인문학이 융성하고 나서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인문학의 발전이 좋은 문장가를 배출할 수 있는 토대이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에 문운(文運)이 열려 좋은 문장가가 줄줄이 배출되는 성세(盛世)가 오기를 고대해 본다.

社說

시교육청, 지금이 감정싸움이나 할 때인가

최근 광주교육행정을 놓고 현 교육감과 전 부교육감이 벌이는 불성사나운 논쟁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소통 부재와 학력 저하를 놓고 박표진 전 부교육감이 쓴 소리를 놓고 박표진 전 부교육감이 반박하자 다시 박 전 부교육감이 재반박하고 나서는 등 감정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을 놓고 서로의 견해를 밝히고 지적하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전례없는 이들의 설전은 교육발전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를 의식한 기선 제압용 싸움을 올려 교육감이 반박했던 소통 부재와 실력 저하 실상에 대해 낱낱이 지적했다. 소통 부재에 대해 그는 주요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을 한 데 갈등을 느껴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지금은 ‘실력 광주’의 비법을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오는 지역이 한 곳도 없다며 광주 혼자만 실력 광주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능 1~2등급이 종전 1위에서 현재는 3위로 밀려난 점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 전 부교육감은 지난날 명퇴 직후 직원들에게 소통 부재와 실력 저하를 우려한 이메일을 보낸 데 대해 교육감이 반박성의 글을 올리자 이에 다시금 대응한 것이다.

교육정책을 놓고 서로의 견해를 밝히고 지적하는 것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하지만, 전례없는 이들의 설전은 교육발전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년 선거를 의식한 기선 제압용 싸움을 올려 교육감이 반박했던 소통 부재와 실력 저하 실상에 대해 낱낱이 지적했다. 소통 부재에 대해 그는 주요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을 한 데 갈등을 느껴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지금은 ‘실력 광주’의 비법을 벤치마킹하려고 찾아오는 지역이 한 곳도 없다며 광주 혼자만 실력 광주를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능 1~2등급이 종전 1위에서 현재는 3위로 밀려난 점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우치동물원 3년간 74마리나 폐사하다니

광주우치동물원이 시민들의 무분별한 먹이주기로 동물들이 숨지는가 하면 생태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 학대에 시달리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74마리가 폐사한 것도 관리 소홀에 따른 질병과 부상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관람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온 수컷 기린인 지난 2011년 12월 갑자기 숨을 거두 부검한 결과한 결과를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당시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과 전남대 수의과대학 의료진들이 메스를 들이대고 보니 기린의 위 속이 엉망이었다고 한다.

기린의 위 속에선 노곤·비닐·과자봉지·면장갑 등이 가득했으며, 이러한 이물질들이 뒤엉켜 돌맹이처럼 굳은 덩어리가 3개나 나왔다. 이로 인해 먹기는커녕 소화도 안 된데다 신장 등에 염증이 생겨 결국 폐사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동물원 측이 ‘동물이 배탈났다. 물·과자·음료수 등의 먹이를 주

지 마세요’라는 팻말을 설치한 것도 이면 이유다.

또한, 우치동물원의 서식환경도 극히 열악하다고 한다. 호랑이사(솜), 해양동물사, 원숭이사 등 19곳의 우리로 구분돼 있지만 대부분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성돼 동물들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원숭이사, 파충류사, 표범사와 같은 사육장은 청소와 관리 등을 이유로 바다에는 흙이 아닌 콘크리트로 깔려져 있어 동물들에게 고통과 질병을 부추기고 있다.

동물원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이며,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광주시는 우치동물원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생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관객들도 무분별한 먹이주기가 동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 자연과 생명의 경의 대상인 동물원에서 다수의 동물들이 폐사하는 건 분명 광주의 수치다.

의료칼럼



이인석
동아병원 원장

어깨 통증 예방과 치료

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방치하게 되면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어깨충돌증후군은 광상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하고, 적절한 근력운동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팔을 들어올릴 때 통증이 있거나 무언가 걸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어깨충돌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단 어깨의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회전근개 파열은 55세 이상에서 높은 빈도를 보인다. 회전근개 파열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어깨부위 특히 삼각근에 나타나는 통증이다. 팔을 위로 들어올릴 때 주로 통증이 나타나는데 60~120도 정도 들어올릴 때 통증이 심해지고 오히려 더 들어올리면 통증이 감소하기도 한다. 심한 경우에는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자다가 아파서 깨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야간통이 심한 경우 환자는 앉아서 잠을 자기도 한다.

회전근개의 부분파열은 일단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분파열이

완전파열로 진행하는 경우가 확실하지 않으며, 비수술적 치료 성공한 이후에 재발해 수술로 전환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통상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한다. 비수술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전근개의 기능 회복이다.

일단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로 활동을 제한하고 약물요법과 휴식을 통해 통증을 줄인 후, 관절운동과 회전근개 기능의 회복을 꾀한다. 관절운동범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먼저 스트레칭과 수동적 운동을 통해 관절의 운동범위를 확보해야 한다. 관절의 운동범위가 회복되면 회전근개 및 견갑골 주위 근육의 근력을 증가시켜 기능을 회복하도록 한다.

모든 운동치료는 항상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해야 한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초음파로 정확한 병소를 찾아 주사치료로 통증을 경감시켜 운동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3~6개월 정도의 비수술적 치료에 호전을 보이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한다. 나이가 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 기능 상실이 크고

통증이 심할수록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회전근개의 완전파열은 대부분 노령에 발생하며 비수술적 치료로도 호전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완전파열의 경우에는 재발 및 파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파열이 너무 진행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의 정도와 기간, 환자의 연령 및 활동 정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치료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어깨가 아픈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어깨가 아픈데 운동을 해야 하나요?’이다. 답부터 말하자면 오십견(유착성 관절낭염)이든 회전근개 손상이든 운동을 해야 하는 단계가 있고,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단계가 있다. 급성기에 통증이 심할 때 아픈 것을 참고 운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처음에는 휴식을 취하고 약물을 주사치료로 통증을 조절한 후에 스트레칭이나 수동적 운동으로 관절의 가동범위를 넓힌 다음 운동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고



김종선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곤충잡입연구소장

가까운 미래, 밥상에 올라올 ‘곤충고기’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곡물 가격은 오르고 덩달아 육류가격은 폭등하여 향후에는 사치품목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싼 육류를 대체할 품목은 무엇이 될까? 해결의 실마리는 식물과 곤충의 제집으로부터 배고픔을 해결했던 원시시대로부터 찾아야 한다.

저개발국인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국의 약 80%가 조상대대로 관습에 의해서 곤충을 식용으로 먹고 있다. 이제는 미개인들이나 먹는 곤충으로 인식하던 유럽의 선진국 사람들도 식품으로서 우수성과 사육비와 물이 가축보다 적게 드는 경제성, 탄소발생이 적은 장점을 홍보하면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곤충 먹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메뚜기와 밤아재비를 잡아먹고 누에 번데기를 볶아서 단백질을 보충하던 때가 있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옛 시절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앞으로의 식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건강을 위하여 영양분이 충분한 영양식을 선호하고, 음식을 적게 먹으며 육류를

기피하는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것이다. 그 때는 다른 육류와 비교해도 단백질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무기염류 종류와 함유량이 더 많은 곤충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 곤충은 손쉽게 조리할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하며, 별도로 식사시간을 맞출 필요 없이 호주머니에서 꺼내 먹을 수 있는 훌륭한 음식재료로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곤충은 농약오염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이 심하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으로 환경 조건이 좋고 따뜻한 겨울이 있는 전남이나 말로 식용곤충 생산의 최적지가 아닐까. 전남지역은 산업과 과정에서 흩날렸지만 오히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서 아재농은 땅이 되었고, 친환경 농업에 의한 먹을 거리 생산을 하면서 보다 질 높은 식용곤충 생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고 본다. 그러나 좋은 조건만 갖췄다고 바로 산업화 되는 것은 아니다. 곤충을 식용으로 쓰기 위해서 대량으로 값싸게 생산되어야 하고, 연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

또한, 소비자의 식용곤충에 대한 혐오감인 식전환을 위하여 건조 분말이나 본래의 형태

를 변형시키는 가공기술 등의 개발도 필요하다. 곤충의 식용 산업화를 위해서는 호기심 많은 세대 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곤충의 맛들이기 급식정책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한 세대에서 식습관이 정착되면 그 이후 세대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어가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이 어렵지 일단 발동이 걸리면 급속도로 가속이 붙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기에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이나 관매조정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 하는 마케팅 기법도 중요한 문제이다.

전남농업기술원 곤충잡입연구소에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단백질원인 메뚜기와 귀뚜라미, 거저리 등을 식용과 가축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량사육기술과 가능성 분석을 통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곤충의 기괴하게 생긴 모습에 무서워하거나 놀라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곤충을 지구상 마지막 미개발 생물자원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수많은 곤충은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인류를 위하여 다양한 음식재료로서 유익하게 활용될 것이며 밥상 위에 올라올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

無等鼓

메기효과(catfish effect)란 옛날 노르웨이 어부들이 먼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 운반하면서 청어의 천적인 메기 몇 마리를 수조에 넣으면 청어들이 메기로부터 살아 남으려고 애쓰면서 심심한 청어를 운반할 수 있었다면서 유래한 것으로 기업경영에 접목한 이론이다.

‘메기이론’은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아담스 토인비 박사가 즐겨 사용했고, 국내에서도 1993년 삼성이건희 회장이 경영혁신을 내세우며 인용하기도 하는 등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

인 전 서울대교수가 82일간의 장고 끝에 노년병 보결 출마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정치계에는 야권발 정계계편과 기존 전체 여의도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메기톤급 충격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새 리더십과 쇄신 정치를 보여 주지 못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

메기 효과



다.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20.1%에서 10.6%로 떨어질 것이라는 조사도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소통부재’, ‘불통’과 ‘오기’ 정치로 논란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 절한 위협과 자극이 필요하다는 신경영의 핵심이론으로 자주 등장한다.

지난해 12월 19일 투표 직후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 11일 ‘새정치’의 깃발을 들고 82일만에 귀환해 그의 행보가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주목: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이 계속된다면 여권도 정계계편 바람에서 안전할 수 없다.

안철수 전 서울대교수의 82일의 등장 이 대선 당시 국민을 하늘로 받들 것처럼 굴었던 기존 정치권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메기효과’로 작용 했으면 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신종 고리대금’ 자영업자 급전대출에 속지 말자

자영업을 하는데 얼마 전 자영업자 운영자금을 빌려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카드 매출액만 확인하면 먼저 돈을 빌려주고 카드 매출 대금에서 매일 15%씩 가져간다고 했다. 요즘 은행 대출도 막혀서 돈 구하기도 어려운 판에 급전이 필요하기도 한 터라 계약을 쓰려고 했다. 이자율이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았던 점이 이상했지만 원

리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영업만 잘하면 된다는 말에 안심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게 웬걸. 계약서는 기간이 안 나와 있었다. 기간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임의로 정해서 그 돈을 회수하겠다고 나서면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었다. 자금이 급하다고 해서 서둘러 계약했다가는 그냥 한방에 흑해서

갈 수 있겠다 싶어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계약을 안 했다.

만약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대부분체와 계약을 마쳤더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대부분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썼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애초에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상태라 나중에 대부분자가 7개월 안에 원리금을 갚으라고 요구했을 경우 카드매출 대금에서 약정했던 15%를 회수하면 남은 액수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때어 가다 보면 결국

법정이자를 상한선인 연 39%의 3배 가까운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물어야 할 판이다.

이게 바로 자영업자를 겨냥한 신종 고리대금이라고 한다. 소위 MCA 혹은 자영업자 급전대출이라고 하는데 자영업자분들이 여기에 속지 않으셨으면 한다.

광고에서 대부분체가 은행을 끼고 급전을 빌려준 뒤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서 일 정액을 떼가는 방식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상책이다.

▲김기봉·광주시 서구 관천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汶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693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총 사 부 2200-57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